

한림대학교 교환학생 수학 보고서

성명/학번		학 번	
학과/전공	의예과	파견대학	Budapest Metropolitan University
파견기간	2025년 1학기	파견국가	헝가리

본 자료는 다음 참가자들에게 사전 지식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자료가 되오니 모든 문항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작성한 것을 복사하거나, **성익이 결여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교환학생 파견 인정, 학점 이관 등의 불이익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 표현 등 자유롭게 친구 및 후배들에게 이야기 하듯, 모든 항목에 **사진**을 반드시 첨부해서 작성한 후 **글로벌교류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iao33@hallym.ac.kr)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명 및 이메일 제목을 “**파견대학명_본인 이름_학번**”으로 변경하여 송부 ※**마감일: 2025. 6. 30.**

1. 현지대학 신청 과정 (분량: 0.5~1장)

Budapest Metropolitan University(이하 METU)는 Learning Agreement와 Registration Form(Erasmus) 두 가지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모두 METU의 Coordinator가 파일과 함께 안내 메일을 보내주면 작성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CONGRATULATIONS AND WELCOME TO METU! > 받은편지함 x METU x

Incoming Erasmus <incoming.erasmus@metropolitan.hu>에게

2024년 11월 14일 (목) 오전 12:31

한국어로 번역

Dear Student,
Greetings from Budapest Metropolitan University! 😊
Congratulations on being selected by your institution for the exchange program at Budapest Metropolitan University for the Spring semester 2024/2025.

My name is Timea Tohai-Oli and I am the incoming students' coordinator here at METU.
I am happy to support you in the different preparation phases and provide all the necessary documentation.

The next step is to fill out the application on the DreamApply application platform as the following:

Step 1: Register an account at [Apply online! - Budapest Metropolitan University](#)
Step 2: Select Erasmus Incoming which will lead you to the "Apply Now" page.
Don't forget to go through the checklist for the requirements first!
Step 3: Thoroughly read the instructions on the front page before selecting "Apply Now"
Step 4: Once you begin filling in the requested information, read the instructions and keep in mind that this data will be used in your official documents, hence it is important to fill it in properly!
Step 5: Upload the requested documents following the provided checklist on the main site of the platform (the checklist provides the criteria and requirements and template for the requested documents).
Step 6: If you have filled in everything and uploaded the necessary documents, you can then submit your application.

Information for the Learning Agreement:

- Kindly find attached the course list for the Spring 2024 Art program which you will need to complete the document
- Please keep in mind that if your university uses any kind of online platforms, you must submit this document online! (OLA = Online Learning Agreement)
- In case your university doesn't use any online platform, please use the attached version, and upload it in Pdf format!

Application period: 13 November, 2024 – 23 November, 2024

Introductory meeting: we will hold an online event on Teams after the application period. There we will discuss all the further steps. you will be able to answer questions and do the corrections if needed.

(1) Learning Agreement

Learning Agreement는 대학의 Coordinator가 보내준 Course List를 바탕으로 어떤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당시 각 과목에 대한 구체적 시간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Credit과 강의 형식 및 대주제만 주어져 어떤 과목을 수강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현지대학 측에서도 이러한 불확실성과 수강신청 시 발생할 변수를 고려하여 학생들 각자의 대략적인 수학 계획을 알고자 요청한 자료일 뿐 실제로 수강한 과목이 달라지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으니 편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현지대학에서 선택할 전공에 대한 과목과 공통으로 수강할 수 있는 Optional 과목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METU의 과목은 대부분 3 Credit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한국의 1학점으로 반영되어 듣는 과목 수에 비해 얻을 수 있는 학점이 적습니다.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하되 헝가리의 Credit을 한국 학점으로 변환해 장학금 이수 최소 학점인 12학점 이상이 되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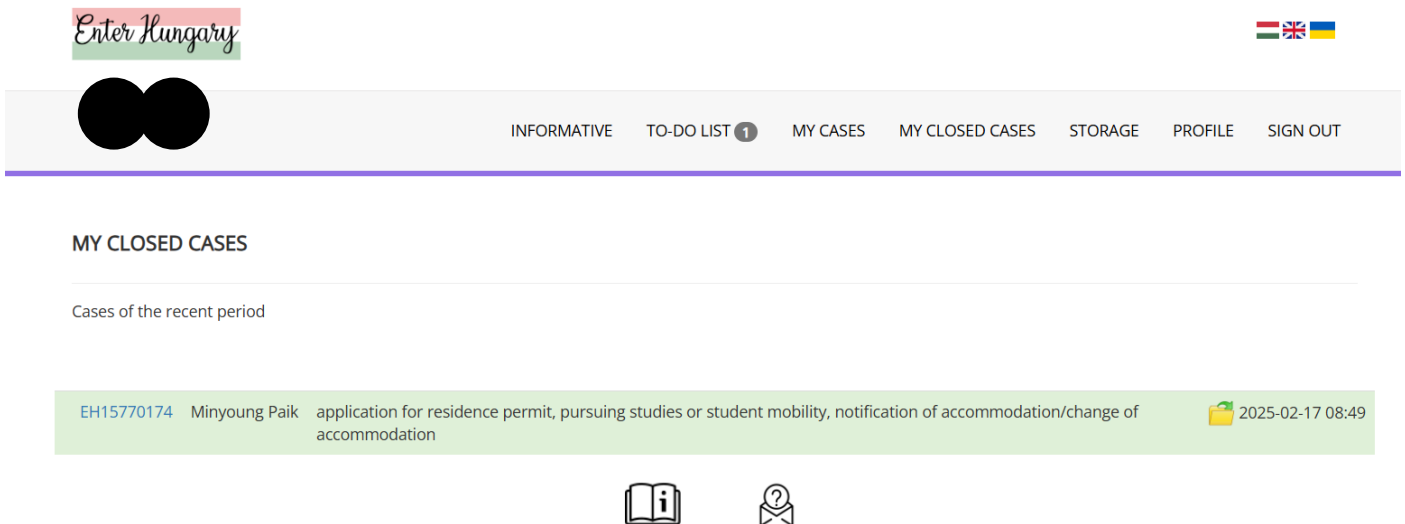
강의 형식은 한국과 다르게 크게 Practical과 Lecture로 구분됩니다. Practical은 대부분 소규모로 이루어져 학생들의 높은 강의 참여를 요구하는 과목으로 출결이 성적에 반영됩니다. Lecture는 많으면 100명 이상의 학생도 수용하는 강의형 수업으로 교수님의 성향에 따라 조별발표 및 참여형 활동도 이루어지기는 하나 출결이 성적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출결이 성적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수업에 출석하는 것이 기본이고 교수님의 재량에 따라 학생의 수업 참여 방식은 상이하므로 강의 형식보다는 과목 대주제를 바탕으로 수강 계획을 세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2) Registration Form (Erasmus)

여권 정보, 현지에서 거주할 주소, International insurance(예: 유학생보험, 해외여행자 보험)를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학기 시작 직전 대면 enrollment -학생증 수령- 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 헝가리 거주증 발급을 위해서도 현지 거주 주소와 해외 보험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METU의 기숙사에 교환학생을 위한 자리가 없다며 학생 각자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한림대학교에서 같은 학교로 같이 파견 간 언니와 United Erasmus Housing이라는 회사를 통해 학생 공유 주거 형태인 Flat을 계약했습니다. METU Coordinator가 부다페스트에서 집을 구할 수 있는 여러 업체를 안내해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살게 될 집을 직접 보지도 못한 채 한국에서 계약을 해야 한다는 점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학교에서 소개해준 만큼 신뢰가 갔고 본래 성격이 의심이 적고 까다롭지 않은 편이라 수월하게 고민 없이 집을 구했습니다. 부다페스트는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고 물리적으로 작은 도시입니다. 현지에서 거주할 집과 학교의 통학 방법 및 시간만 확인해 여건에 맞는 집을 찾아 빠르게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제 집에 매우 만족했고 Flatmate들과 가족 같은 사이가 되어 행복한 교환학생 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학기에도 기숙사에 자리가 부족할 확률이 높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오히려 시내에서 다양한 문화의 친구들과 함께 살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보험은 한화생명 해외유학생 보험을 저의 출국 날짜부터 입국 예정 날짜까지 총 4개월을 가입했고 헝가리 거주증 발급 기준이 4개월 이상의 해외 보험임을 유의해 상황에 맞게 한국에서 미리 가입하여 가시면 됩니다.

2. 파견 전 준비 사항 (분량: 0.5~1장)

(1) 헝가리 거주증



셴겐 조약 덕분에 헝가리 파견 시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지 도착 90일 내에 거주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거주증은 EnterHungary 사이트를 통해 한국에서 미리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신청 후 2주 내에 현지 이민국에 방문하여 최종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증명 사진 촬영과 함께 최종 신청 완료를 이민국에서 대면으로 진행하고 실물 거주증을 파견대학으로 보내줍니다. 온라인 작성 시 위의 Registration Form과 마찬가지로 현지 거주 주소와 보험 증명이 필요하며 추가로 파견 대학으로부터의 재학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현지 도착 전 재학 증명서를 제외한 서류는 모두 작성했고 대면 Enrollment 이후 수령한 학생증을 통해 재학 증명서까지 제출해 온라인으로 서류 발급 비용까지 미리 결제 후 사무국에 방문했습니다. 학기 초반인 2월에는 사무국에 항상 거주증 발급을 위한 현장 대기가 길다고 합니다. 온

라인으로 신청 시간을 예약할 수도 있고, 아예 3월말에 방문해 보다 적은 현장 대기 후 거주증 수령할 수도 있으니 조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예약 없이 3월 중 방문해 약 1시간 반 대기 이후 거주증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그 후 약 3주 뒤에 학교에 거주증이 도착했습니다. 보완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 홈페이지 상에서 친절히 피드백이 온 덕분에 어렵지 않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2) 항공권 및 현지 도착 후 이동 방법

부다페스트는 한국에서 직항이 자주 있습니다. 저는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해 비즈니스를 타고 싶었기 때문에 2월 20일 출국을 목표로 11월 말에 2월 17일, 2월 20일에 대한 항공권을 대기 예약했습니다. 출국 한 달 전인 1월 20일에 대기 확약을 받아 항공권을 결제했습니다. 최대 32kg 캐리어 두 개를 위탁할 수 있었는데 저는 짐이 그리 많지 않아 15kg 정도의 캐리어 두 개와 백팩 하나를 챙겨갔습니다. 부다페스트 공항은 시내에서 차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현지 도착 후 볼트 앱을 이용해 택시로 현지 거주 주소로 이동했습니다.

(3) 가져가면 유용한 생필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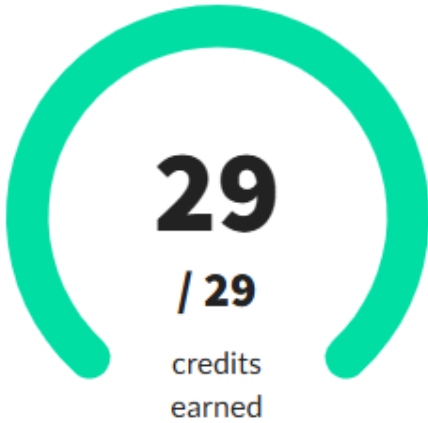
유럽은 라디에이터를 이용해 난방을 하기 때문에 한국인인 저에게는 꽤나 추웠습니다. 전기장판을 꼭 챙겨가세요. 4월까지도 꾸준히 사용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던 기초 화장품과 영양제를 넉넉히 챙겨간 덕분인지 석회질의 물과 밀가루 위주의 식생활에서도 이상 없이 수월하게 지냈습니다. 피부가 예민하거나 소화기관이 약한 편이라면 본인에게 잘 맞는 한국제품을 챙겨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화장품은 K 뷰티 대란으로 한국 프리미엄이 붙어 한국시장의 5배 정도의 가격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사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기 중 Spring Break와 같은 연휴를 이용해 여행을 다닐 계획이라면 보조배터리와 자물쇠를 챙기시기를 추천합니다. 싸고 편리한 숙소인 호스텔을 이용할 때 개인 보관함을 잠그는 용도로 자물쇠를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소매치기가 많은 관광지에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외의 샴푸, 바디워시, 스탠드, 식료품 등은 부다페스트의 물가가 저렴하기도 하고 캐리어의 부피를 많이 차지해 저는 전부 현지에서 구입했습니다.

(4) 교통카드

Budapest Go 앱을 통해 교통카드를 구매하고 대중교통 탑승 시 핸드폰으로 QR을 스캔하면 됩니다. 학생 ID가 발급된 후라면 Pest County Discounted를 구매할 수 있는데 이는 한 달 동안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패스로 본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한국 돈으로 4000원에 부다페스트에서 시외 도시 이동을 제외한 모든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한 대중교통에 놀랐습니다. 한국에 가면 그리울 부다페스트의 장점입니다.

3. 수업 정보 (분량: 1장)

Registered subjects



TERM

2024/25/2 (Current term)

[Statement >](#)

METU의 수업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강의 내용과 성적 처리 과정 모두 쉽고 간단했습니다. 시험을 보지 않고 수업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5(Excellent)를 받을 수 있는 과목도 많았고 조별 발표로 지필고사를 대체한 과목도 있었습니다. 저는 선택하지 않았지만 METU에서 함께 공부한 다른 친구들에 의하면 Practical 형식의 과목들은 대부분 시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출석 기준만 만족한다면 5(Excellent)를 큰 어려움 없이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수업은 헝가리어 수업을 제외하고는 전부 영어로 진행되고 교환학생 지원 자격을 갖췄다면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시험 일정인데, 우리나라와 달리 시험기간이 약 두 달로 마지막 강의가 끝난 후 각자의 계획에 따라 시험 일정을 신청하여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시험도 수강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고 정원이 정해져 있어 원하는 날짜에 시험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m Registration이 그리 치열하지는 않았으나 대부분 빠른 종강을 원하므로 신청 기간에 맞춰 원하는 일정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1) Economic Communication

미팅, 협상, 보고, 면접 등 사회생활을 할 때 도움이 될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15명 정원의 수업으로 Lecture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대부분 학생들의 발표로 이루어집니다. 두세 명 정도 팀을 이뤄 롤플레이와 같은 발표를 하며 학생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참여하는 수업입니다. 출결이 성적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수업에 꾸준하고 활발하게 참여하면 시험을 보지 않고도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 중 과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2) International Protocol and Etiquette

테이블 매너, 비즈니스 매너 등 다양한 상황과 문화에 따라 필요한 매너를 배웁니다. Economic Communication 과목과 교수님이 같아 수업 방식도 유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수업 참여와 과제 제출을 통해 시험을 보지 않고도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다양한 친구들과 친해져 같이 파티를 다니기도 할 정도로 친근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부담 없는 수업입니다.

(3) Organization Behavior and Leadership

경영학과 전공 과목인 조직학 수업입니다. 저는 의예과이지만 한림대학교에서는 교환학생 신분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의과대학이 존재하지 않아 다른 전공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학과로 METU에 왔습니다. 저를 제외한 이 수업의 다른 친구들은 모두 본래 경영학과로 이미 조직학을 수강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첫 수업 당시 교수님이 조직학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만 배경지식이 없다는 것을 파악하시고는 저도 수업에 따라갈 수 있도록 보다 친

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강의 형식이지만 교수님이 수업 내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기말고사가 구술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교수님의 질문에 답해보는 연습이 곧 시험 대비가 되었습니다. Oral Exam은 각 단원에 대해 두 개 정도의 큰 질문, 대답에 따른 꼬리질문을 통해 평가됩니다. 교수님 오피스에 두 명씩 들어가 한 명씩 일대일로 교수님과 시험을 봅니다. 중간고사 없이 기말고사만 존재했던 과목이라 12개 단원 분량의 낯선 형식의 시험을 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은 시간에 들어가 시험을 본 친구는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가 통과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자 저도 더욱 긴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40명 정원의 수업이지만 출석이 성적에 반영되지 않아서인지 보통 10명 내외의 학생이 수업에 출석했습니다.

(4) New Media Theories - COM MA

COM MA는 Communication Master라는 뜻으로 석사 과정 과목이었습니다. 경영학과 학사 과정임에도 수강이 가능했습니다. 수업의 난이도가 걱정되었으나 다행히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APA 형식의 보고서 과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토론, Kahoot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말고사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Kahoot은 온라인 스피드 게임 프로그램으로 비대면이라는 본 과목의 특성을 반영한 특이한 시험 방식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수업 중 여러 차례 Kahoot 연습 시험을 진행하셨고 연습 시험의 내용과 유사하게 실제 시험이 출제되어 과목 난이도에 비해 쉬운 시험이었습니다.

(5) Media Regulation Theories

유럽의 미디어 규제를 주로 다룬 수업입니다. 수업은 대면으로 진행되었으나 시험은 온라인으로 치러졌습니다. 중간고사 없이 기말고사로만 평가되어 공부량이 상당했습니다. 내용이 많은 만큼 시험의 난이도는 평이했습니다. 금요일 오전이라는 시간대 때문인지 수강 인원보다 수업 출석 인원이 적어 저 혼자 수업에 참여한 적도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친절하셔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강의 자료 또한 친절해 자료만으로 공부 가능해 참여도가 낮았나 싶기도 합니다.

(6)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e

국제 무역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중간고사는 온라인으로, 기말고사는 대면으로 진행되었는데 특히 기말고사가 어려웠습니다. 중간 기말 모두 PPT 400장 분량의 시험범위로 양 자체도 많고 내용의 난이도도 높았습니다. 기말고사가 더 까다롭게 느껴진 이유는 시험 문항이 전부 서술형으로 각 단원에 대해 모든 용어 및 과정을 아는 대로 전부 서술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국제 거래 시 대금 결제 방법의 종류 모두를 각 방법의 과정과 함께 설명해야 했습니다.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아는 대로 모두 적어보라는 문항도 있었습니다. 패스를 받을 수 있어 그저 감사하기만 한 과목이었습니다.

(7) Introduction to E-business

온라인 시장의 역사와 현재, 미래를 알아보는 과목이었습니다. 100명 이상의 대형 강의입니다. 중간고사와 과제가 존재하지 않고 기말고사로만 평가되었는데 기말고사는 자신만의 E-business를 구상해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Sample Exam Question을 시험 전 자료실에 업로드해주시고 시험 중 미리 구상해온 아이디어를 참고하거나 필요하다면 인터넷의 도움을 받으며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의만 보인다면 어렵지 않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8) Logistics

150명 정도의 대형 물류학 강의입니다. 평가는 조별 발표로만 진행되었는데, 10명씩 한 팀이 되어 PPT 10장 분량 정도의 발표를 하면 됩니다. 발표 전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며 발표자는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평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의 완성도에 따라 3부터 5까지 성적을 주시고 이 외의 과제나 시험은 없습니다. 저희 팀은 모든 과정에서 수월하게 역할 분담을 하며 부담 없이 준비했는데 좋은 성적까지 받게 되어 편안한 기억만 남은 과목입니다.

4. 캠퍼스 생활 정보 (분량: 1~2장)

METU는 부다와 페스트에 캠퍼스가 하나씩 있습니다. Art 모듈을 제외한 Business, Tourism, Communication 모듈은 모두 페스트에 위치한 Nagy 캠퍼스에서 수업합니다. 캠퍼스는 4층 규모의 건물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식당과 도서관도 존재합니다. 식당은 평일 11시부터 15시까지 운영하고 메뉴는 매일 달라지나 전형적인 동유럽 학생 식당 메뉴로 감자와 함께 구운 닭가슴살, 치즈 튀김, 토마토 파스타 등입니다. 샐러드와 같은 채식 옵션, 글루텐 프리 옵션 등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디저트도 매일 제공됩니다. 구운 야채에 메인 고기 메뉴 하나, 샐러드 하나 담았을 때 2만원 정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가성비가 좋은 편도 아니고 맛도 특별하진 않아서 한 번 경험해본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이탈리아 친구들은 대부분 요리에 자부심이 있어서 교내 식당 맛이 없다며 직접 요리를 싸와 전자레인지에 돌려먹고는 했습니다. 저도 집에서 간단하게 요거트와 과일을 싸가 식당에서 자주 간단히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도서관은 강의실 세 개 정도를 합친 크기라 크지 않습니다. 헝가리 대학 학생증이 있다면 국립도서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 Metropolitan Library나 ELTE Library 이용을 추천합니다. Metropolitan Library는 관광 명소이기도 한 장소로 성안에서 유럽 공주가 된 기분을 느끼며 공부할 수 있습니다. ELTE Library는 해리포터에 나올 법한 도서관으로 규모나 아름다움 면에서는 Metropolitan보다는 못하지만 시험기간에 오후 10시까지 운영해 유용하게 이용했습니다. 부다페스트의 카페는 대부분 일찍 닫습니다. 빠르면 3시, 대부분 6시에 닫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만한 카페가 많지 않습니다. 시험기간에 도서관만 한 곳이 없습니다. 카공을 선호하신다면 Astoria역 앞 Mon Cheri 추천합니다. 드물게 11시까지 영업하는 노트북 사용하기 편한 카페입니다. 스타벅스도 무난하게 공부하기 좋지만 다른 카페들과 마찬가지로 늦게까지 영업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학교 캠퍼스는 Metro 2의 가장 끝 역인 Ors Vezer tere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내와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부다페스트 자체가 매우 작은 도시라 중심지에서 지하철로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캠퍼스 바로 옆에는 이케아와 쇼핑몰 두 개가 있습니다. 한 쇼핑몰은 Zara, H&M과 같은 스파 브랜드 위주의 신식 쇼핑몰이고 다른 하나는 조금 낡고 작지만 영화관이 있는 쇼핑몰입니다. 저는 옷도 거의 들고 오지 않아서 공강이 있을 때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거나 친구들과 간단한 간식을 먹으며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쇼핑몰 내 마트가 크고 제품 종류도 더 다양해 집 가는 길에 필요한 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주최하는 교환학생 대상 행사가 몇 차례 있습니다. 개강 직후 Welcome Event에 참여해 핑거푸드와 함께 무알콜 칵테일을 마시며 간단한 레크리에이션을 하고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학교행사보다는 Erasmus Life Budapest(이하 ELB)라는 교환학생 연합 단체에서 진행하는 행사들이 학생들의 참여도도 높고 흥미로운 것들이 많아 참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LB 카드를 구매하면 ELB 제휴 및 주최 파티들을 무료 혹은 싼 가격에 제한 없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주 월요일은 Erasmus Monday로 파티 무료 입장에 오후 11시 전까지 맥주 한 잔에 0.6유로로 구매할 수 있어 부다페스트 내 대부분의 교환학생들이 이 파티에 모입니다. 파티에 가 비어퐁을 하고 춤도 추며 여러 학교의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파티가 있습니다. ELB에서 주최하는 여행도 있습니다. 저는 헝가리 외곽 마을 Mohac에서 진행되는 전통 카니발 축제를 보러 ELB에서 진행되는 당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교통은 제공해주지만 여행 일정 중 이동은 자율적이라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라하, 비엔나 등 다른 나라를 함께 여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보드게임 나이트, 와인 테이스팅 등 흥미로운 이벤트가 자주 있으니 기회가 되는 만큼 참여해 좋은 경험과 친구들을 잔뜩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음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헝가리 음식이 입맛에 잘 맞았습니다. 헝가리 사람들은 파프리카, 사워크림, 페타치즈, 오리고기를 좋아합니다. 한국의 매운맛보다는 부드럽지만 고춧가루와 유사한 파프리카 가루를 활용한 요리가 주입니다. 굴라쉬, 치킨 파프리카쉬, 파프리카 소스를 곁들인 돼지 목살 스테이크, 파프리카 소시지 등 맛있는 요리가 많습니다. 헝가리안 식당 중에서는 Parisi 6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오리다리 콩피를 가장 추천드리고 돼지 목살 스테이크도 맛있었습니다. 페타치즈를 곁들인 샐러드도 특이하게 치즈를 살짝 그릴해 주어서 맛있었습니다. 밀가루를 튀겨 사워크림, 갈릭소스, 치즈 등을 올려먹는 랑고쉬도 헝가리에 오시면 꼭 드셔야 합니다. 길거리 음식에 가깝고 놀이공원이나 페스티벌에서 혹은 물놀이 이후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달지 않은 찹쌀 도너츠를 넓게 반죽해 선포에 따라 토핑을 올려먹는데 저의 추천은 사워크림, 치즈, 햄(베이컨), 적양파 조합입니다. 갈릭소스는 토핑이라기보다는 피자 마무리에 올리브유 뿌려주듯이 뿌려줄지 물어보는데 알겠다고 하면 됩니다. 간혹 뿌려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손맛이라 할 게 없는 음식이다 보니 갓 튀겨주는 집에서 먹으면 어디든 실패 없습니다. 다만 길거리 음식이다 보니 시내에는 반죽을 미리 튀겨놓는 집이 많습니다. 시장에서 사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Huanyi Market에서 1100포린트(한국 돈 약 4000원)에 사먹은 랑고쉬가 가장 맛있었습니다. 관광객 타겟으로 하는 집은 4000포린트 정도 합니다. 집 근처 시장을 구경하다 갓 튀겨주는 랑고쉬를 발견한다면 꼭 드셔보세요!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헝가리 음식인 굴뚝빵 Kurtoskalacs를 소개합니다. 체코 명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엄밀히 따지면 헝가리가 원조인 자랑스러운 동유럽 전통 빵입니다. 반죽을 통에 돌돌 말아 불에 구워내 설탕과 시나몬 가루, 코코아 가루, 호두, 코코넛 등을 기호에 따라 뿌려먹습니다. 시내 곳곳에, 지하철 역마다 굴뚝빵 가게를 찾을 수 있는데 냄새가 델리만쥬처럼 유혹적이라 다들 홀린 듯 사먹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헝가리 친구들은 냄새가 천상계인 것에 비해 맛은 큰 감동이 없다 말합니다. 저는 교환학생 생활 내내 맛있게 먹었습니다. 헝가리 대표 관광상품인 만큼 관광객 밀집 지역에서는 3000포린트 정도, 지하철역이나 거리 가판대에서는 1000포린트 정도 가격으로 가격 차이가 꽤 있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가게에서는 아이스크림이나 크림을 넣어주거나 보다 화려한 토핑을 곁들이기도 하는데 저는 기본 시나몬을 가장 선호합니다. 랑고쉬와 마찬가지로 레시피보다는 신선함이 중요한 음식입니다. 꼭 갓 구운 뜨거운 굴뚝빵을 드셔야 합니다. 눈앞에서 구워주는 뜨거운 굴뚝빵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습니다. 지하철역 근방 가게들은 대부분 미리 구워놓는 것을 주는데 뜨거운 걸 달라고 꼭 요청하거나 돈을 더 내더라도 주문 즉시 구워주는 가게를 찾아 가기를 바랍니다. 아이스크림을 넣은 굴뚝빵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도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굴뚝빵을 한 김 식혀주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은 따로 사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차가운 굴뚝빵을 주는 경우는 그 어디에도 없고 모든 곳에서 따뜻한 빵을 팝니다. 살짝 식은 굴뚝빵도 여전히 매력 있습니다. 주문 즉시 구워주는 집인 Pichler와 제 집 근처였던 Keleti 역 앞 굴뚝빵집을 추천합니다. 역 앞 집은 1000포린트에 원플러스원으로 하나에 500포린트라는 시내 가장 착한 가격을 제공합니다. 수업 끝나고 룸메이트들과 집에 가는 길에 사먹는 굴뚝빵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가장 생각날 음식입니다. 한식이 그리울 땐 하나로 식당의 김치찌개 반상을 드시면 됩니다. 달달한 한식을 혐오하는 사람으로서 음식이 전혀 달지 않고 다양한 반찬을 리필 추가 비용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이 한식당을 가장 추천합니다. 부다K비스트로도 제가 외국인 친구들을 데리고 자신 있게 찾아간 한식당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삼겹살과 떡볶이, 김치볶음밥을 먹으면 여기가 한국인지 헝가리인지 도통 구분이 안 됩니다. 저는 여행을 다녀도 한식당을 아예 가지 않는 편이고 교환 학생 생활 중에도 한식이 생

각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부다페스트에는 맛있는 한식당이 많다고 하니 한식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다페스트 한인카페 “요나보뜨 코리아”를 통해 한식당을 비롯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끔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외의 맛집 추천은 피자는 Neverland Pizzeria - 디아볼라 피자 추천, 푸아그라(헝가리가 주요 생산지라고 합니다)는 Comme Chez Soi, 팔라친타(헝가리식 크레페, 팬케이크)는 Bank3 Palacsinta Bar, 스테이크는 Beerstro14 Steak House, 디저트는 Cake&More by Garannikova, 크로아상 및 비에누아즈리는 Vaj, SALT Bakery, 일식 퓨전은 TOKIO - 삼겹살 메인 요리 추천, 딤섬 및 원톤은 Zhu and co입니다. 중식 생각 나신다면 차이나타운에서 하절기 내내 진행하는 야시장 추천합니다. 헝가리는 바다가 없어 해산물이 귀합니다. 식당에 가도 접할 수 있는 해산물이 연어와 새우 정도입니다. 해산물, 특히 회를 좋아하신다면 매우 그리울 테니 한국에서 충분히 드시고 오세요! 5월에 3일간 열리는 헝가리 미식축제가 있는데 미식에 일가견이 있으시다면 방문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 축제 덕분에 다양한 맛집을 경험하고 저장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름이 다가오면 미식축제 외에도 샴페인 축제, 와인 축제 등 시내 곳곳에서 흥미로운 축제가 많이 열립니다. 축제도 즐기며 현지 생활을 보다 풍요롭고 친근하게 보내 시기를 바랍니다!

5. 생활비 및 지출 (분량: 0.5~1장)

기숙사에 잔여 방이 없어 Flat을 이용했습니다. 복층 구조의 한 방을 한림대학교에서 같이 파견 간 언니와 한 층씩 나눠 썼고 주방, 거실, 욕실 두 개는 룸메이트 언니를 포함한 총 네 명의 친구들과 함께 썼습니다. 월세는 280유로, 보증금 560유로, Utility는 사용량에 따라 달마다 별도입니다. 언니가 METU 25학년도 1학기 교환학생 단톡방에 저희 둘이 한 방을 쓸 예정이고, 추가로 3명의 플랫폼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려 모인 친구들이라 전부 여자인 같은 학교 친구들이었습니다. 운 좋게 친구들도 배려 있고 잘 맞아 주방이 작은 집임에도 불편함 없이 생활했습니다.

부다페스트는 외식 물가는 한국보다 비싸지만 식재료 값이 매우 쌉니다. 특히 빵과 유제품이 저렴합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주로 요거트, 빵, 우유, 치즈로 끼니를 해결했어서 한국에서보다 식비가 적게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큰 요거트는 3천원, 치즈도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5천원 미만, 빵은 하나에 500원 정도입니다. 원할 때마다 외식도 종종 했는데 한 끼당 평균 3만 5천원 정도였습니다.



한 달 동안 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Pest County Pass Discounted는 945포린트입니다. 공항버스는 편도로 2200포린트입니다. 100E 공항버스가 아닌 200E 공항버스는 별도 티켓 없이 Pest County Pass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이동 시간 차이는 10분 정도라 급하지 않고 짐이 적을 땐 200E를 이용했습니다.

여행비는 개인의 여행 성향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저는 아끼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숙소도 위치와 청결을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음식도 가격 신경 쓰지 않고 가장 맛있다는 곳으로 찾아가 먹었습니다. 투어도 여유롭고 좋다고 평가받은 것으로만 골랐습니다. 다만 비행기 티켓은 항상 최대한 저렴할 때를 노려 갔습니다. 총 9번의 여행을 평균 4박 5일 정도로 계획해 다녀왔습니다. 가장 싼 비행기표 가격은 브뤼셀 왕복 3만원이었고 가장 비쌌던 것은 리스본 인아웃 왕복 20만원이었습니다. 대부분 왕복 8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표를 구입해 다녀왔습니다. 평균적으로 여행을 하면 숙소와 교통 모두를 포함해 9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여유롭고 긴 일정임에도 지출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은 제가 빵을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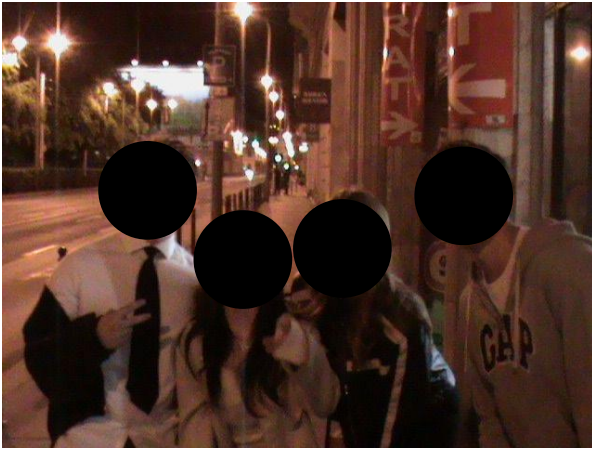
해 빵으로 끼니를 해결할 때가 많았고, 걷는 것을 좋아해 시내 교통 지출이 적었으며, 배가 불러 하루에 한 끼만 먹을 때가 많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 쇼핑 외 전체 지출을 계산해보면 2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4개월 간 1600만원 정도입니다. 큰 소비를 하나 해서 포함 시 교환학생 전체 기간 동안 1900만원 사용했습니다.

6. 자기평가 (분량: 1~2장)

교환학생 파견을 앞두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생겼고 출국 몇 달 전 남자친구도 생겼습니다. 한국에 두고 온 인연들이 신경 쓰여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설렘보다는 근심이 컸습니다. 그러나 한 번 마음먹었으니 뒤돌아보지 말고 전진해보자는 다짐으로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곧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를 탈 지금, 교환학생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임이 확실합니다. 4개월 동안 부다페스트에서 저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우며 강해졌습니다.

부다페스트가 학생들을 위한 값싸고 친근한 파티의 도시라는 것을 아셨나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파견 전 동유럽 여행을 온 적이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 부다페스트에는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운 작은 도시, 1박이면 돌아볼 수 있는 동유럽 도시라는 것이 제가 부다페스트에 대해 가진 인식이었고 여행 계획 시 과감히 부다페스트를 건너뛸 수 있었던 것도 이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인이 가진 부다페스트에 대한 인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부담 없이 파티를 즐기기 위해 친구들과 여행 가는 도시, Erasmus(EU 교환학생) 생활을 매일 신나게 보낼 수 있는 도시가 바로 부다페스트였습니다. 처음 다른 유럽 국가에서 온 친구들과 왜 부다페스트를 선택했냐고 물었을 때 모두가 하나 같이 파티를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친구를 사귀는 데에는 파티만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파티를 통해 프랑스, 벨기에, 미국, 체코, 콜롬비아, 스페인,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같이 비어퓌를 하고 술을 마시며 밤새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문화에 대해 물으며 평생 한국에서 살며 특이하다고 인지하지도 못한 특이점들을 깨닫고 다른 문화의 차이점들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인종, 나이, 젠더 등은 친구가 되는 데에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할 땐 알 수 없는 각 문화만의 연애관이나 인간관계 간의 특이점을 느끼며 이 세상이 얼마나 다양하고 다채로운지를 느꼈습니다. 어디를 가든 여자애들/남자애들 생각하는 건 똑같구나... 싶은 점도 있었고 같은 20대인데 이렇게 다르다고? 싶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전에는 관심을 갖지도 않았고 알 길도 없었던 문화들을 듣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항상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사회를 떠나 타지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야 할 이유와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환학생을 통해 제 세상 밖을 둘러보고 이방인이 아닌 친구로 환영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외부자의 관점에서 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과 언제든 저만의 세상을 확장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우리 문화의 자랑스러운 점은 지켜가고 다른 문화의 본받을 점은 흡수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파티 문화를 통해 보다 쉽게 사람들과 가까워지며 저의 인생에 대한 한 단계 발전된 태도와 인생의 소중한 인연들을 얻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두 명이 체코에서 온 친구와 콜롬비아에서 온 친구인데 체코 친구와는 발라톤 호수로 피서 여행을, 콜롬비아 친구와는 스페인 여행을 함께 하며 서로의 이야기에 울고 웃으며 잊지 못할 추억들을 쌓았습니다. 처음 친구를 사귄 때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모두들 하나 같이 멋지다고 말해줬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우리나라의 일방적 주장과 바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파티에서 한국음악이 나오고, 외국 친구들이 한국 콘텐츠를 시청했고, 한국음식이 바이럴이 돼 한식을 함께 시도해보고 싶어했습니다. 제가 한국인이라는 점이 자랑스럽고 기쁜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저의 옷, 화장 스타일부터 한국어까지 진심으로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을 알린 분들에게 감사해지며 저도 한국에 대한 좋은 인식을 해치지 않도록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교환학생을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 문화를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의 세상이 이 세계에 비해 얼마나 좁고 단조로운지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안주하며 살아온 저에게 교환학생은 행복한 자극이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짜릿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저는 남자친구는 잃었지만 얻은 것이 훨씬 많아 부다페스트에 온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최고의 기회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자유 서술 (선택 사항)]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결정하기까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예: 복수전공, 졸업요건, 어학능력, 재정적 부담 등